

**LG아트센터**  
**2020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20**



**CoMPAS20**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0**

**20**  
th  
ANNIVERSARY

**6.9** tue

7:30pm

**알렉상드르 타로**

R 80,000 S 60,000 A 40,000

**6.17** wed – **20** sat

weekdays 7:30pm, sat 5pm

**세븐 핑거스 <여행자>**

R 80,000 S 60,000 A 40,000

**6.25** thu – **27** sat

thu-fri 7:30pm, sat 5pm

**아크람 칸 <제노스>**

R 80,000 S 60,000 A 40,000

**9.16** wed – **27** sun

tue, wed & fri 7:30pm

thu & sat 2:30pm & 7:30pm

9.20 sun 2:30pm & 7:30pm

9.27 sun 2:30pm

**매튜 본의 <레드 슈즈>**

**VIP** 145,000 R 120,000 S 80,000 A 60,000

**10.30** fri – **11.1** sun

fri 7:30pm, sat 7pm, sun 3pm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R 80,000 S 60,000 A 40,000

**11.6** fri – **8** sun

fri 7:30pm, sat 5pm, sun 3pm

**티모페이 쿨리아빈 연출 <오네긴>**

R 80,000 S 60,000 A 40,000

**Notice**

CoMPAS20의 평일 공연 시작 시간이 7:30p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G Arts Center**



Designed by 2+2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2000년 개관하여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해 온  
LG아트센터는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In pursuing this objective, LG Arts Center receives valuable resources in the form of financial subsidies from its parent LG group to offset the operational losses incurred in the presentation of the arts. LG Arts Center strives to endorse diverse artistic values and expressions of our times to the Korean public, and aspires to become the premier performing arts venue for both our valued audiences and artist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artistic inspirations and amazing viewing experiences for everyone. Our aim is to win their trusts and make LG Arts Center their most preferred presenter of performing arts in Korea.

# CoMPAS20 할인 안내

## 개별공연 티켓 오픈

2020.1.21(화) 10am

• 매튜 본의 <레드 슈즈>는 추후 별도로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 조기예매 할인

~ 2.29(토)

- 2월 29일(토)까지 개별공연 구매 시 15% 할인

### 뭉싸 할인

~ 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동일 공연의 동일 회차, 동일 등급 4매 이상 구매 시 20% 할인(선착순 회당 100매)

### 청년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만
- R, S 20%, A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실버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 외 1인까지
- R, S, A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공연예술전문가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각 공연별 차등 할인 제공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할인

~ 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아트 컬렉션!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공연을 '신한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공연별 선착순 200매)

\* 해당공연: 세븐 핑거스 <여행자>

매튜 본의 <레드 슈즈>

티모페이 쿨리아빈 연출 <오네긴>

### 신한카드 10%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예매 시 10% 상시 할인 제공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상기 할인은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20'에만 해당합니다.

# 알렉상드르 타로

## Alexandre Tharaud



6.9 tue  
7:30pm

R 80,000  
S 60,000  
A 40,000

### PROGRAM

베토벤, 라모, 드뷔시, 라벨, 사티 등  
Beethoven, Rameau, Debussy, Satie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우아한 연주과 음악 양식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트레이드 마크”  
“(It is) Played with Tharaud's trademark of  
elegance, and with a keen sense of style”  
BBC Music Magazine

프랑스 피아니즘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연주자  
다채로운 색채감이 돋보이는 변화무쌍하고 신선한  
해석의 J.S.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2016년 객석을 열광시키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알렉상드르 타로는 비범한 아이디어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터치, 넓은 스펙트럼의 색채감으로 자신의  
주 종목인 쇼팽, 바로크 및 모던 프랑스 레퍼토리는  
물론,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양송, 재즈 등  
연주하는 음악마다 예상치 못한 신선함을 안겨주며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 시대의  
독특한 피아니스트다. 또한 뛰어난 글솜씨로  
다수의 저서를 내놓았는데, 특히 작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된 그의 에세이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에선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콘서트 피아니스트의 삶과 깨달음을 시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음악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긴 바 있다.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리사이틀에선 타로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드뷔시, 라벨, 사티 등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과 함께 2020년 탄생  
250주년을 맞는 베토벤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타로는 이미 여려 음반을 통해 프랑스 피아노  
레퍼토리에 최적화된 감성과 연주력을 보여줬으며,  
특히 최근에 발매된 <베르사유> 음반(Warner  
Classics)에선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프랑스  
예술이 활짝 피어난 17세기의 바로크 레퍼토리를  
피아노로 연주하여 커다란 찬사를 받았다.  
비상한 해석과 뛰어난 감성을 드러낼 이번  
리사이틀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다.

French pianist Alexandre Tharaud,  
who wowed the packed audience  
with a unique interpretation of  
<Goldberg Variations> in 2016,  
returns to LG Arts Center in  
June. His artistic curiosity and  
endeavors for more than 25 years  
are reflected in his extraordinary  
discography covering baroque  
through to the major 20th century  
French composers. In his June  
recital, he will showcase his  
unparalleled renditions of French  
repertoire including Rameau,  
Debussy, Ravel, and Satie.

# 세븐 핑거스 <여행자>

## The 7 Fingers 'Passagers'

“회오리 바람을 연상시키듯 서커스 기술, 음악, 영상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다.”

“*Passagers* marries imagery, music and acrobatic performances in an evocative and inspiring whirlwind.” Le Devoir, Canada

6.17 wed — 20 sat

weekdays 7:30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90분(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rtitles.

**Notice**

공연 중 포그 머신을 사용한 연기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the use of haze machine.

“세븐 핑거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 단체가 되었다.”

“Une des plus fameuses compagnies de cirque du monde.” Le Monde, France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여기 한 기차역이 있다. 누군가의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작별과 환영의 인사가 교차하는 곳.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머무는 곳. 이곳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8명의 여행자는 같은 곳을 향하는 기차에 탑승한다.

덴마크 리퍼블리크 씨어서와 공동 제작한 <보스 드림즈>로 2018년 LG아트센터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아트 서커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븐 핑거스가 최신작 <여행자>로 돌아온다. 태양의 서커스 출신 아티스트 7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컨템포러리 서커스 그룹 세븐 핑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2013년 미국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수상, 3번의 올림픽 공연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여행자>는 2018년 캐나다 아트 마켓 시나르(CINARS)에서 극찬을 받은 최고 화제작으로 세븐 핑거스의 뛰어난 서커스 기술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드라마와 유기적으로 엮인 수작이다. 서커스 기술 중심의 에피소드식 구성을 뛰어넘어 음악, 안무, 연기, 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이는 이 작품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세븐 핑거스의 창립자이자, 서커스 분야 최고 경연 무대인 프랑스 몬디알 페스티벌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안무가 샤나 캐롤(Shana Carroll)이 안무/연출을 맡아 세븐 핑거스의 명성과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러시아, 유럽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달리는 <여행자>의 월드 투어 행 기차는 2020년 6월, 드디어 한국에 정차한다. 기차역에 대한 향수와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이 기차를 절대 놓치지 말자!

In the spirit of the 7 Fingers' previous shows, 'Passagers' pushes the limits of the scenic experience in a quest to arrive at what is universal, extraordinary, indefinable, visceral and deeply personal within us all.

'Passagers' is a fusion of dance, physicality, music and acrobatics set against a backdrop where travel nostalgia meets the modern-day multimedia world. Shana Carroll, who directed and choreographed 'Passagers', has put together an exceptional design team for this show, which is complete with original musical compositions, an ingenious set and an international cast of eight artists. The narrative arc follows that of a journey: In a train car, strangers cross paths as they negotiate departures and arrivals, stillness and acceleration, the familiar and the foreign. 'Passagers' invites us to enter a fascinating world that reveals the tender intimacies of characters so much like ourselves.

# 아크람 칸 <제노스>

Akram Khan Company  
'XENOS'

6.25 thu — 27 sat

thu-fri 7:30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65분(휴식 없음)  
Duration: 65mins with no interval

지연 관객 입장이 불가합니다.  
Latecomers may not be admitted.

#### Notice

공연 중 무대 효과로 폭발음이 있어 심약자, 임산부는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an explosive sound.

#### 무용수 아크람 칸의 마지막 장편 솔로

방글라데시 출신의 런던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안무가로 우뚝 선 아크람 칸은 인도 전통춤 카탁을 현대무용과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안무 세계를 만들어 왔다. 뛰어난 안무가이자 동시에 독보적인 무용수였던 아크람 칸은 실비 기엠, 줄리엣 비노쉬, 시디 라르비 세르카위와의 듀오 시리즈와 그의 전설적인 솔로작 <데쉬>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제노스>를 끝으로 무용수로서 은퇴를 선언했다.

<제노스>는 인류에게 불을 훔쳐준 대가로 매일 간을 뜯어 먹히는 고통을 받은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의 부름에 응답한 많은 식민지 군인들, 특히 영국을 위해 참전했던 100만 명의 인도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제노스(xenos)'는 외국인 혐오증을 나타내는 '제노포비아'의 어원이기도 하다. 아크람 칸은 이 작품을 통해 참전 병사들의 고통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언제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과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지 일깨운다.

인도의 한 마을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카탁  
무용수로 무대에 등장하는 아크람 칸은 포탄  
소리와 함께 전쟁터의 비탈길에서 밧줄을 붙잡고,  
대영제국을 위해 참전하여 최전방에서 통신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인도군으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펼쳐낸다. 붉은 경사무대에 늘어뜨려진  
여러 개의 밧줄과 엉겨진 조명, 인도의 전통  
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조화 사이로 언덕을 끝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고된 움직임은 곧 전쟁의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무명의 병사들을 위한  
일종의 진혼제가 된다.

<제노스>에는 아크람 칸의 육체가 담아두었던  
농축된 내공과 안무가로서의 명석함, 창작진들과  
함께 쌓아 올린 진지한 고찰이 담겨있다. 과거  
LG아트센터 무대에서도 만났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무용수로서 특별함을 증명했던 무용수 아크람  
칸과는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겠지만, 이 작품을 통해  
점점 더 밀도를 높여온 안무가로서의 행보에는  
더 큰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 "위대함을 정의하는 작품"

"A work of defining greatness"

The Guardian

#### "에너지, 공감 그리고 지성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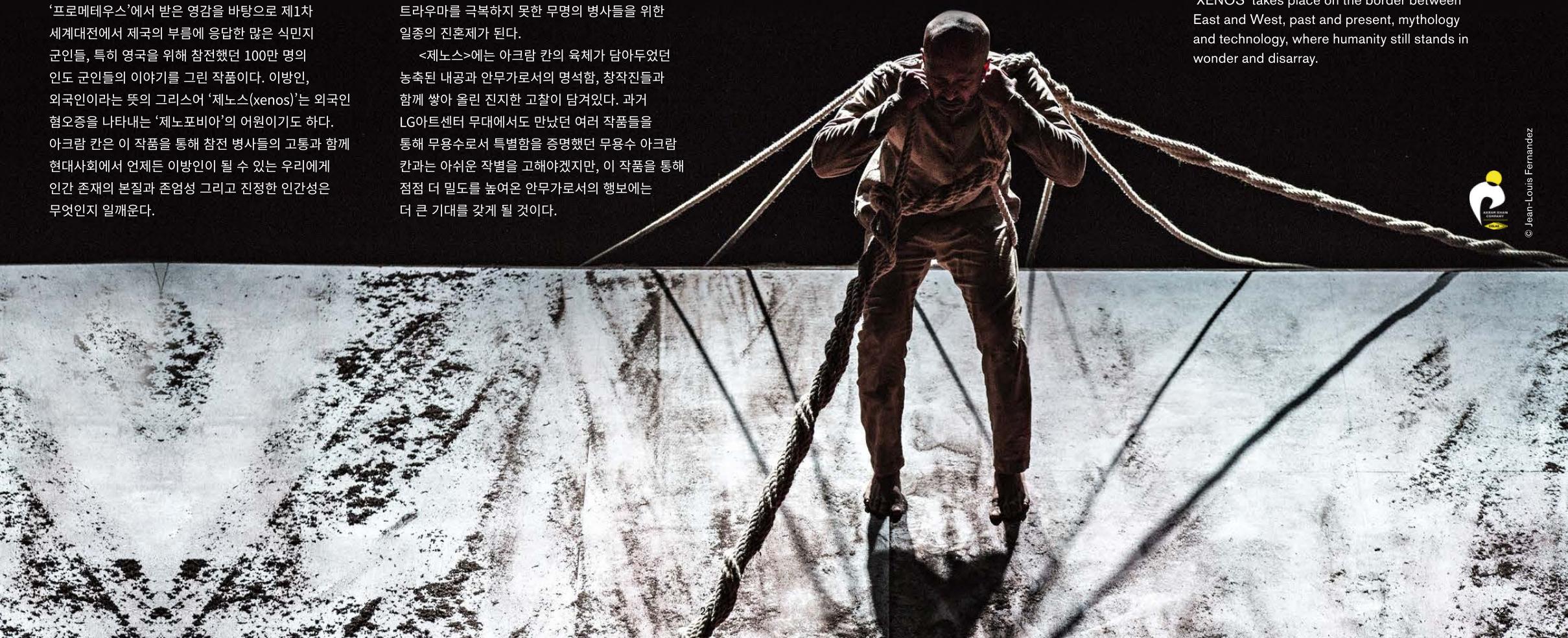
"A triumph of energy, empathy and intelligence" The Telegraph

'XENOS' marks Akram Khan's last performances as a dancer in a full-length piece. He draws on the archives of the 20th century, and gives voice to the shell-shocked dream of a colonial soldier in the First World War. 'XENOS' reveals the beauty and horror of the human condition in its portrait of an Indian dancer whose skilled body becomes an instrument of war. Khan's movement language shifts between the Indian classical dance form, kathak and contemporary dance.

'XENOS' takes place on the border between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mythology and technology, where humanity still stands in wonder and disarray.



© Jean-Louis Fernandez



“지금까지 이뤄낸 매튜 본 최고의 성취”

“Matthew Bourne's finest achievement to date” The Stage

“무용으로 만들어져야 할 운명의 영화가 한 편 있다면 <레드 슈즈>이며, 그 감독은 매튜 본이다.”

“If ever there was a film destined to be reinvented as a stage ballet, ‘The Red Shoes’ is it — and Matthew Bourne is just the director to envision it.” Variety

9.16 wed — 27 sun

tue, wed & fri 7:30pm  
thu & sat 2:30pm & 7:30pm  
9.20 sun 2:30pm & 7:30pm  
9.27 sun 2:30pm

본 공연은 별도로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VIP 145,000  
R 120,000  
S 80,000  
A 60,000

소요 시간: 1시간 55분(휴식 포함)  
Duration: 1hr 55mins with an interval

관람연령: 8세 이상  
Age Guidance: 8+

# 매튜 본의 <레드 슈즈>

## Matthew Bourne's production of 'The Red Shoes'

A New Adventures Production

올리비에 어워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 ‘베스트 안무가’ 부문 수상(2017)

LA 드라마 크리틱 어워드 ‘안무가’ & ‘의상’ 부문 수상(2017)

내셔널 댄스 어워드 ‘최우수 여성 무용수’ 부문 수상(2017)

### 매튜 본의 완벽한 터치가 살려낸 클래식 영화의 감성

2019년 <백조의 호수>로 매진 신화를 이어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TIME) 매튜 본이  
최신작 <레드 슈즈>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과 흥분을 선사한다. <레드 슈즈>는  
안데르센의 동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매튜 본은 동화보다는 1948년 영국에서  
제작된 동명의 고전 영화 <레드 슈즈>에서 영감을  
받았다. 명감독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이  
연출하고, 전설적인 발레리노 로버트 헬프만(Robert  
Helpman)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1949년  
'아카데미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며 꼭 봐야 할  
고전 영화로 사랑을 받아왔다.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을 받은 베나드 허먼  
(Bernard Herrmann)의 음악 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대와 의상, 감각적인 조명 디자인이  
추가된 매튜 본의 <레드 슈즈>는 1940년대 헐리우드  
황금기 시대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하는  
발레리나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찬란하게 재현한다.

2016년 11월 초연 시 새들러스 웨즈에서 8주간의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2017년 뉴욕, 워싱턴, LA 투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7년 ‘올리비에상’에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베스트 안무가 등 2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LA 드라마 크리틱 어워드’  
에서는 최우수 안무상, 최우수 의상상,  
최우수 조명 디자인상 등을 석권하여 가장  
성공한 매튜 본의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갱신하며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무용계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매튜 본. 그와 무용단의  
모든 노하우가 결집된 <레드 슈즈>는 극장과  
춤, 영화를 향한 절절한 헌사이자, 관객의 눈과  
귀, 심장까지 사로잡는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다.  
2020년 가을, 무대가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을  
경험할 순간을 기쁘게 기다려 보자.



A Rambert & Sadler's Wells co-production in association with Onassis STEGI, Athens.  
Co-produced with Festspielhaus St. Pölten; Grec Festival de Barcelona i Teatre Nacional de Catalunya; Théâtre de la Ville - Paris / Chaillet - Théâtre national de la danse; Les Théâtres de la Ville de Luxembourg; Adelaide Festival, Melbourne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nd Torinodanza Festival / Teatro Stabile di Torino - Teatro Nazionale. Recreation Premiere at Festspielhaus, St Pölten. Premiere International Run at Onassis STEGI, Athens.

#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 Ballet Rambert & Sadler's Wells 'Enter Achilles'

A work by Lloyd Newson (DV8 Physical Theatre)

영국의 어느 펍, 8명의 남성들, 주크박스와 쌓여있는 맥주 잔  
사건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손꼽히는  
DV8 피지컬 씨어터의 안무가 로이드 뉴슨이 영국의  
펍 문화를 처음 무대 위로 끌어낸 지 25년이 지난 2020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댄스 컴퍼니 램버트와  
새들러스 웰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획기적인  
피지컬 씨어터 작품 <엔터 아킬레스>를 다시 무대화한다.  
<엔터 아킬레스>가 초연된 1995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이 작품은 맥주에 절어 있는 남성성의  
과격함과 유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남성다움”이라고  
구속하는 관념들”(The Observer)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추악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우스꽝스럽다”(The Australian)는 평을 받은 이 작품은  
1995년 초연 후 전 세계 18개국을 투어하는 한편,  
TV 영화로도 만들어져 ‘에미상’과 ‘프리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전설적인  
로이드 뉴슨과 그가 직접 선발한 캐스팅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의 램버트와의 첫 협업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새로운  
<엔터 아킬레스>를 만나보자.

Twenty-five years after legendary dance iconoclast Lloyd Newson first dragged British pub culture kicking and yelling onto the stage, Rambert and Sadler's Wells present Newson's reworking of this "rare, rich, devastating, triumphant work of art" (Daily Telegraph). As pertinent now as it was when first staged in 1995, Enter Achilles wrestles with the notion of masculinity, through the funny, provocative and disturbing actions of eight men during an evening in a British pub.

The critically acclaimed original production was made into an Emmy Award-winning film. It now returns to the stage with a new cast, selected by Newson, in his first-ever collaboration with another company, the world-renowned Rambert.

10.30 fri —  
11.1 sun  
fri 7:30pm  
sat 7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80분(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with no interval

관람연령: 19세 이상  
Age Guidance: 19+

지연 관객 입장이 불가합니다.  
Latecomers may not be admitted.

### Notice

만취, 폭력, 성행위에 대한 묘사 및 흡연, 마약, 누드,

욕설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depictions of

drunkenness, violence, sex and smoking of

cigarettes, drug use, adult themes, nudity and

strong language. No filming or photography.



“로이드 뉴슨의 강력하고도 스펙터클한 <엔터 아킬레스>는 남성다움의 폭력성과 취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혼란스럽다.”  
“Lloyd Newson's powerful and spectacular new work, Enter Achilles, is about violence and vulnerability of manliness - funny, moving, disturbing.” Sunday Times

Timofey Kulyabin is undoubtedly among today's most talented and successful Russian directors of the new generation who has won recognition all over Europe. His Golden Mask Award-winning 'Onegin' removes all expectations of Pushkin's romantic novel in verse and places you not in some historical epoch, but in today's world, immersed in the inner thoughts, hopes, despairs, passions and disappointments that drift in, through and around the central figures, Onegin, Tatiana, Olga and Lensky. Instead of a classic "Encyclopaedia of Russian life" the performance shows a quiet love story, managing to convey the spirit of the great poet and proving that his work still resonates with the 21st century reality.



### 가장 연극적인 푸슈킨의 운율

세계적인 거장을 다수 배출한 연극 강국 러시아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하는 연출가 티모페이 쿨리아빈을 LG아트센터가 자신 있게 소개한다. 시베리아 중남부에 위치한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극단 레드 토치 씨어터를 이끌고 있는 쿨리아빈은 연극과 오페라를 넘나들며 현재 러시아 연극계의 중심과 유럽 연극계 전면에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 연출가다.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연출가들을 평가하는 러시아에서 30대 초반에 벌써 2개의 작품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골든마스크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쿨리아빈은 2016년에는 불쇼이 극장의 오페라 연출을 맡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한국 관객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안겨줄 연극은 2014년 골든마스크상 2개 부문을 수상한 <오네긴>으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바탕하고 있다. 삶의 권태에 사로잡힌 젊은 귀족 오네긴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타티아나 사이에 엇갈리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시적인 운율에 담아낸 이 독특한 형식의 소설은 19세기 초 러시아의 생활상을 잘 담아내 '러시아적 삶의 백과사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곤 한다. 러시아 문학을 세계 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오페라, 발레, 영화 등으로 만들어져 이미 많이 익숙해진 이 걸작을 쿨리아빈은 세월이 더해준 무게감과 교과서적인 해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손길을 가해 우리 시대의 관객들에게 공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오네긴과 타티아나, 렌스키, 올가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19세기 고전 속의 캐릭터들은 쿨리아빈의 비범한 연출과 레드 토치 씨어터 배우들의 선굵은 연기를 통해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같이 꿈꾸고, 열망하고, 고뇌하고, 절망하는 가까운 현실 속 인물들로 재탄생한다. 흑과 백, 회색으로 가득한 무채색 무대 위에서 각 인물이 품고 있는 격정적인 내면과 그와 달리 우아하고 담담하게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는 화려한 원색 뜻지 않게 강렬하고 선명한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21세기에도 영원한 걸작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11.6 fri —  
11.8 sun

fri 7:30pm  
sat 5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2시간 40분(휴식 포함)  
Duration: 2hrs 40mins with an interval  
관람연령: 19세 이상  
Age Guidance: 19+

러시아어로 공연되어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Russian with Korean subtitles.

### Notice

공연 장면 중 흡연 및 분진 발생 장면이 있어 앞쪽 좌석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scenes of smoking cigarettes and blowing powder that may affect some front seats.

# 티모페이 쿨리아빈 연출 푸슈킨의 <오네긴>

## Red Torch Theatre 'Onegin' by Timofey Kulyabin



"쿨리아빈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출가 중 하나이며 비르투오소다."  
"Kulyabin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irectors of his generation and a virtuoso pro." St. Petersburg Theatre Journal



# 러시 아워 콘서트 RUSH HOUR CONCERT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뮤지션들이  
선사하는 눈부신 라이브

평일 저녁 7시, 복잡한 퇴근길을 피해 콘서트장으로 향하자.  
탁월한 음악성과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동시대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20년에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팝, 록, 재즈, 국악,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될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음악이 주는 짧은 휴가를 만끽하자.

“Escape the chaotic rush hour traffic, and enjoy a concert instead.” Stretching across diverse disciplines such as pop, rock, jazz,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world music, ‘Rush Hour Concert’ presents live stages of contemporary musicians who boast musical excellence and extraordinary character. Come and join the ‘Rush Hour Concert’ on a weekday at 7pm to forget the stress of everyday life and to cherish the happy moments.

CoMPAS20 sponsored by

LG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 U+ LG하우시스

CoMPAS20 Shinhan Card Art Collection sponsored by

신한카드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TMI는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만나시면,  
관람의 깊이와 기쁨이 커집니다.

## 제휴 레스토랑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단, 각 레스토랑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할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 및 쿠폰과 중복할인 불가)



### 메인 로비 카페

당일 티켓 소지 시 10% 할인



### RESTAURANT (가나다순)

####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월·토 11:30-22:00  
일 11:30-21:30  
(브레이크 타임 15:00-17:30)  
코스 메뉴 15% 할인  
(티켓 1매당 1세트)

#### 분짜라봄 역삼점

(베트남 하노이식 분짜 & 쌀국수)  
02-567-5379  
11:00-22:30  
1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평일 11:30-14:30 / 17:30-22:00  
주말 12:00-16:00 / 17:0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 보나베피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2:00 (일요일 휴무)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 와인주막차자 역삼점 (와인 & 한식)

02-554-0722  
평일 11:00-14:00 / 17:30-00:30  
토 17:30-00:30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5% 할인

####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